

3月5日 第148회 임시국회 對政府質問

汎國民 環境保全運動의 總理 所信추궁

北韓포함 東北亞환경협력 공동체 次元 논의主張



發言者：국회 安榮基 의원

(民自堤原·丹陽(60세) 韓醫博·前 全國韓醫大
委員長·大邱韓醫大교수·大韓韓醫師協會長)

편집자주：환경문제가 「선거때 표와 연결」이 안되는 나라는 진정한 민주국가가 아니라고 극언하는 국제환경론자의 말도 있다. 온 국토가 오염으로 몸살을 하고있는 작금 앞으로 의정단상에서 10만 선량들이 얼마나 환경문제에 대한 국민의 소리를 잘 반영시키는데에 대해 관심을 기울이지 않을수 없어 자연공원을 포함한 자연보호및 환경문제에 대한 의원발언을 抄錄해서 실어보기로 한다.(浪)

먼저 國務總理께 묻겠습니다.(中略)

지난날 經濟成長一邊倒의 量的成長 政策은 GNP의 成長에는 크게 기여하여 왔지만 한편, 階層間 不公正, 不平等, 不均衡의 문제를 심화시키고, 大氣, 水質, 土壤을 오염시키며, 人間疏外現狀 등의 삶의 質 문제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소홀해 온 것입니다.

국가의 발전은 經濟發展 못지않게 社會發展도 중요하므로 정부가 社會問題에 대해 소홀히 한데서 오는 책임은 크다 할 것입니다.

지난번 행정개혁위원회의 보고서가 기대와는 달리 각 부처간 업무과점 주장으로 중복되거나 分散된 業務는 거의 整理解決하지 못한 것으로 판명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새로운 당면과제로 부각된 交通, 福祉 문제 등 社會發展에 적극 대응하고, 地方化 時代를 맞이하여 中央과 地方間의 업무재조정을 위한 과감한 行政改革이 더욱 필요하다고 보는데 總理의 소신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環境問題는 이제 단순한 국내문제만이 아닌 隣接 國家間 또는 전 地球的인 문제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백령도에 강한 酸性비가 내리고 西海가 급속도로 오염되어가는 것은 中國과 日本의 公업화악도 무관하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東北亞 지역의 환경문제를 韓·中·日 더 나아가 北韓까지 포함하는 <東北亞環境協力共同體> 차원에서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總理의 見解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東西獨의 경우, 1972년부터 '東西獨環境會談'을 시작으로 해서 정치적·경제적으로 곤경에 처할 때마다 理念과 體制를 초월하는 環境議題로 대신하여 危機를 모면하였다는 보고서가 있습니다.

非武裝地帶의 生態系保護, 南北韓 大氣 및 水資源 共同保護, 廢棄物技術의 共同開發 등을 논의하기 위한 南北韓 環境會談 추진이 本 議員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總理의 답변을 바랍니다.

끝으로, 環境處는 “環境元年”을 설정하면서 의욕적으로 출발하고 있으나 環境政策은 대부분 環境處, 內務部, 建設部, 保社部 등으로 分散되어 있어 國務總理의 과감한 業務調整 및 監督이 필요합니다. 上水源保護 特別對策地域 指定, 死文化되어 가는 自然保護憲章을 포함하는 環境宣言, 환경투자의 확대, 汎國民 環境保全運動의 활성화에 대한 국무총리의 소신있는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中略)

다음은 環境處 長官에게 묻겠습니다.

첫번째, 大氣 중 亞黃酸가스가 원인이 되는 酸性비가 우리나라에서 정상기준치의 100배까지 내리고 서울에 내린 비중 83%가 酸性비라는 보도는 그 피해에 대해 크게 염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酸性비는 적게는 피부, 호흡기, 안과질환, 심하면 樹木生長지해, 湖水의 물고기 떼죽음뿐만 아니라 生態系의 破壞, 시멘트 구조물과 金屬의 부식 등 可憐할 피해를 가져오는데, 이와같은 酸性비의 예방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지난 여름 “수도물 파동” 이후 맑은 물 공급대책을 밝힌 바 있으나 지금까지 가시화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環境處에서는 그 일환으로 팔당호와 대청호의 권역을 上水源保護特別對策地域으로 지정할 계획인바, 대상지역 11개 시군, 54개 읍면, 2910km²에 달하는 그 지역 주민들에게 不利益이 없도록 하는 支援對策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以下省略)

세 미 나

한국환경 교육의 전략과 실천방안

—학교위주 벗어나 사회연계돼야 실효—

한국환경교육학회와 환경보전협회가 주최하고 한국교육개발원이 주관한 “한국환경교육의 전략과 실천방안”이라는 환경학술회의가 지난 4月17일부터 18일까지 한국교육개발원 제1회의실에서 문교부와 UNESCO의 후원으로 개최 되었다. 이번 세미나에서 韓鍾河 교육개발원부원장은 우리나라 환경교육의 현실은 그 중요성에 비추어 교육내용및 방법 실천의지와 전략면에서 아직도 소극적이고 비체계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현재와 미래의 환경 문제에 대처하려면 환경교육의 일대 혁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번 회의에서 발표된 주제는 다음과 같다.

△ 환경문제와 환경교육

- 환경문제와 환경교육
- 생태학적 위기의 극복과 환경윤리학의 과제
- 한국의 환경정책과 환경교육
- 한국의 경제와 환경교육

- 한국의 지역문제와 환경교육
- 한국의 사회구조와 환경교육

△ 한국환경교육의 현황과 실천 방향

- 한국 환경교육의 과제와 전망
- 한국의 사회환경교육
- 한국의 환경교육 교수-학습자료 개발
- 한국의 가정생활과 환경교육.
- 한국의 중·고등학교에서의 환경교육.
- 한국의 환경교육 담당 교사연구방안.
- 한국의 환경전문인력 양성교육.

△ 한국의 환경교육에 시사점을 주는 외국의 환경교육

- 일본의 환경교육
- 미국의 환경교육
- 독일의 환경교육
- 프랑스의 환경교육